##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 청허선사 '聲觀'

선사의 법명은 휴정(休靜), 법호는 청허(淸虛), 서산(西山), 자는 현응(玄應), 속성은 완산 최씨이며, 중종 15년(1520)에 태어났다. 선사가 3살 되던 해 부처님 오신 날 아버지 세창은 낮술에 취하여 마루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 때 괴상하게 생긴 한 노인이 나타나 "아기 스님(小沙門)을 뵈러 왔습니다"고 말하고 두 손으로 아기를 받쳐 들고 경(經)을 외었다. 노인은 독송을 한 후 아기를 내려 높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아기의 이름을 운학(雲學)이라 하고 소중히 키우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였다.

선사는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열 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다. 고아가 된 선사를 안주목사 이사중이 양아들로 삼았다. 선사는 양부를 따라 한양으로 와서 유학을 공부하였으며, 15세에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했으나 떨어지자 동료 문생들과 삼남(三南)의 산천을 유람하였다.

두류산, 지리산, 청학동, 칠불암 등 산과 절로 6개월여를 돌아 다녔는데 영원암에서 한 노숙(老宿 : 법이 높은 선사)을 만났다. 노숙은 선사를 보고서 "그대의 용모를 보아하니 심공급제(心空及第 : 마음이 허공처럼 광대하면서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대자유의 경지에 올라간 것)를 하면 영원히 세상의 명리를 끊고 고통을 떠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선사는 "어떤 것이 심공급제입니까"라고 물었다. 노숙은 눈을 꿈뻑(瞬目)하며 "알겠느냐"고 물었다 선사는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했다. 다시 노숙은 "심공급제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야"하고는 〈전등록〉, 〈화엄경〉 등 수십 권의 경전을 주면서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면 점차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선사는 한양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열심히 경전 공부를 시작했다. 6년째 되던 어느 날 경전 속에 숨겨진 오묘한 가르침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각문(覺門)

忽聞杜宇啼窓外(홀문두우제창외)
滿眼春山盡故鄕(만안춘산진고향)
汲水歸來忽回首(급수귀래홀회수)
靑山無數白雲中(청산무수백운중)

홀연 들려온 소쩍새 소리에 창밖을 보니,
봄빛에 물든 온 산이 모두 고향이구나.
물 길어 오는 길에 문득 머리 돌리니,
수많은 청산이 흰 구름 속에 솟았네.

선사는 도솔산으로 가서 학묵 선사 회상에 나아가 수참하여 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리산 삼철굴, 사불산 대승암 등 여러 선방에서 몇 년을 보낸 후 남원에 사는 벗을 만나러 가는 도중 한 낮에 닭 우는 소리에 확철대오하였다.

성관(聲觀 : 소리에 불타를 보고 깨우쳤네)

髮白非心白(발백비심백)
古人曾漏洩(고인증루설)
今聽一聲鷄(금청일성계)
丈夫能事畢(장부능사필)
忽得自家底(홀득자가저)
頭頭只此爾(두두지차이)
萬千金寶藏(만천금보장)
元是一空紙(원시일공지)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사람이 이미 말했네.
오늘 닭 우는 소리 들으니,
대장부 할 일 다 마쳤네.
홀연히 네 집을 발견하니,
모든 것이 모두 이것이어라.
천언 만어의 경전들이,
본시 하나의 빈 종이였어라.

선사는 운수납자로 유유자적하시다가 선조 37년(1604) 1월 원적암(圓寂庵)에서 가부좌를 한 채 입적하였다. 세수 85세, 법랍 67세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 천언 만어의 경전들 본시 하나의 빈 종이

◇은사이신 해안당 대종사 행적비 앞에 선 혜산 스님. 감동적일 만큼 두터운 사제의 정을 '수행 도량 만들기'로 이어오고 있다.

**혜산 스님은?** 1933년 전북 정주에서 나신 스님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후 해안 대종사를 은사로 내소사로 출가하셨다. 1973년에 내소사에서 해안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이듬해에는 해인총림 선원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규정원 규정위원, 총무원 사회부장, 서울 조계사 주지, 부산 동명불원 주지 소임을 두루 거쳐 현재는 내소사에 주석하신다.

이처럼 수행과 행정 양면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지만 '성불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적자가 아니다'는 해안 스님의 뜻을 받들어 어떤 소임으로 살든지 수행이라는 본분사를 지키기에 흐트러짐이 없으시다. 그 뜻의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선원을 열어 '하안거' 결재를 했고 지금은 동안거를 날 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행 도량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고자 하신 노력이 거의 결실을 본 것이다.

또한 스님께서는 젊은이나 재가자들의 수행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일찌기 전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지도 법사단장을 맡기도 하셨다. 현재는 해안 스님 생존 당시에 결성한 '전등회'의 회주 일도 겸하고 계신다.

# "성불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 혜 산 스 님 (내소사 회주)

세상에서 물러나는 방식(出世間)으로 세상과 화합회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님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하지만 중생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롭기를 발원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님이다. 그래서 모든 승가는 종파를 불문하고 '자비문중'일 수밖에 없다.

고우면서도 유약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도 고즈넉함을 잃지 않는 절, 내소사. 언제 보아도 갓 쓸고간 싸리비 자국처럼 정갈한 도량이다. 이런 곳에서 스님을 뵙는 일은 참으로 기껍다.

### '격의 없음'의 높은경지

마지막 가을 햇살이 색색의 단풍으로 빛나는 내소사 뜨락에서 혜산 큰스님을 뵈었다.

"성불하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단풍놀이삼아 절 구경 온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합장 인사를 건네자, 스님 또한 허리구부려 맞아들이신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행운이라면 행운이다. 백 마디 법문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 산 공부인 셈이다.

스님을 따라 단풍 고운 경내를 한 바퀴 돌았다. 슬며시 다가와서 무례(?)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모델(?)이 돼 주신다. '격의 없음'의 높은 경지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스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대해 주셨다. 그런데 가까이서 그런 모습을 지켜 보는 나는 오히려 수시로 매무새를 가다듬게 된다. 진정한 권위란 외형적 위엄이나 위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

그렇다면, 현실 속의 이러한 스님의 면모가 순전히 스님의 개성이나 수행 공력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밖의 다른 무엇이 있는 걸까? 이 대목에서 우선 스님을 둘러싼 많은 것들, 이를테면 출가 인연이나 수행 이력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고교 시절에는 교회에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는데 회의가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년을 헤매다가 교회 나가기를 그만 뒀지요. 의심이 가시지 않으니까. 그 당시 나에게 '절대절명'의 과제는 오로지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 어느 절에서 우연히 해안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접하게 됐어요. 서문을 읽는 순간부터 가슴을 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거다 싶어서 밤새도록 베낄 정도였지요."

그야말로 우연히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출가 수행자로서의 시절 인연은 도래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해안 스님과의 인연은 움을 틔우기 시작한다.

"대학 졸업 후 은사 스님(해안)과 서신 왕래가 시작됐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편지로 여쭈었지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곤 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은사 스님께서는 법문하실 때 간혹 편지를 꺼내 보이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삼년 동안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오늘날처럼 전화가 흔한 시절도 아니었으니 그 사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전부 이럴 수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반목과 다툼은 발 붙일 자리조차 없을 텐데, 하는 상상(?)을 해 본다.

시절 인연은 무르익기 시작하고, 드디어 스승과 제자는 상봉의 날을 맞는다.

"은사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지장암(내소사 부속 암자)에서 '특별 정진 법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정진 법회란 뭔고 하니, 스님들처럼 안거를 할 형편이 못되는 불제자를 위한 정진의 자리였어요. 이걸 두고 요즘와서는 '재가선방'의 효시라고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디 은사 스님께서는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승속 불문이셨어요. '본래면목'을 보는 것, 이것이 불교의 근본 종지라는 점에 누구보다도 투철하셨지요. 안거가 불가능한 보통의 신도라고 해서 심인을 증득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견성하지 못하면 온전한 불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스님께서는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발심의 동기 또한 단순한 흥미 이상이다.

"은사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어요. 못난 놈도 일 주일이면 깨친다고요. 이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나는 그때 '확철대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진 법회가 끝나고도 절을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가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일을 못 마쳐서 못 갑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머리를 깎았어요.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안 스님에게서 혜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내소사라는 절집의 '가풍'을 읽을 수 있다. 재미삼아 스님의 지난 얘기를 들춘 게 아니라, 바로 그점을 얘기하기 위해서였다. 그 하나, 성불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인연 닿는 중생 모두에게로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한국 불교가 정화의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승속을 불문한 일종의 수행 결사체인 '전등회'를 만든 것이 좋은 예다. 지금은 면모를 일신한 서울 성북동의 전등사도 해안 스님 당시에 서울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설산스님의 맑은 영혼과 사랑 이야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순수한 알몸이 되어 간다

알몸이야기
설산 스님 시집

마음의 평온이 어디서 오는가?
뭇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던 설산스님의 '알몸철학'을 만나십시오!!

신국판변형/
170쪽/6,000원

알몸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천진 무구 순수 어린이의 마음

그 세계는
아무 걸림없는 무애의 세계
자비를 탄생시키는
절대 초발심의 그릇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곧
자신을 편케 하는 것이다
알몸으로 세상을 연다
-본문 중에서-

이무것도 걸치지 않고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즐거운 아이처럼 알몸이 되리라

백만문화사 대표전화(02)325-5176 팩스(02)323-76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422-2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김몽 홍몽)〉 〈태몽, 그 출생의 비밀〉 〈꿈풀이 삶풀이〉
■ 부록 〈길흉 부부궁합〉

정현우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운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저 /정가15,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점생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